

○ 지난해 한국인의 행복도가 급격하게 추락한 것으로 나타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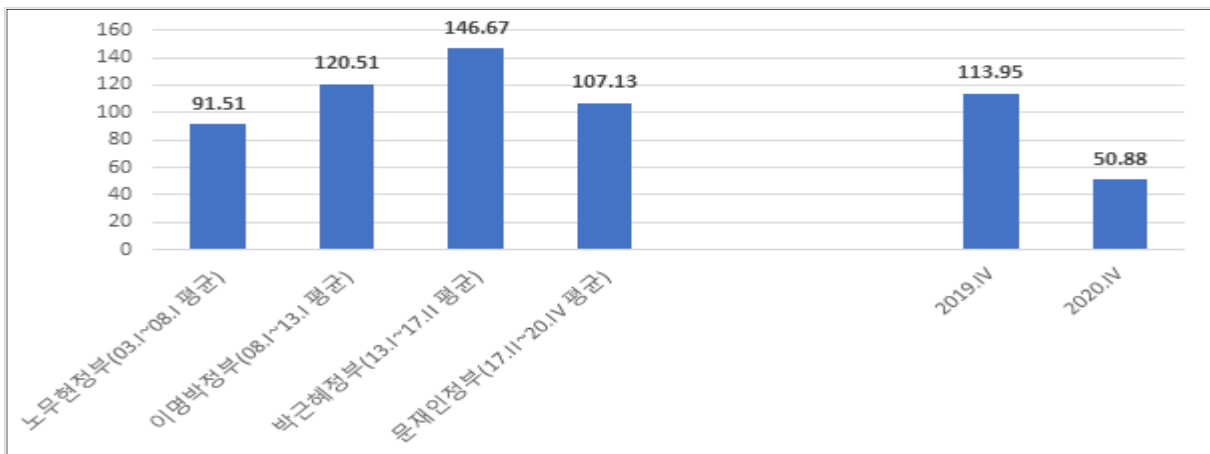
- 국가미래연구원에 따르면 '2020년 4분기 국민행복지수'는 50.88로 역대 최저로 추락
 -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 4분기(113.95)와 비교하면 절반 이하
 - 정부별 국민행복도 : 박근혜 정부 > 이명박 정부 > 문재인 정부 > 노무현 정부 순(順)
- 한편 UN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가 내놓은 '2021 세계 행복보고서'에서도 한국의 행복 수준은 95개국 중 50위에 그침

○ 헛발 부동산 정책, 무리한 소주성 정책이 만든 집값 급등, 일자리 증발이 주요 요인

- 서울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(KB주택가격)은 지난달 9억6480만 원으로, 2009년 대비 2배
- 2월 통계청 고용동향에 따르면 1년 새 20~30대 청년 취업준비생이 7만4000명 증가
 - 그 영향으로 2월 국내 취업생 수는 역대 최다인 85만3000명을 기록

지난해 한국인의 행복도가 급격하게 추락

단위: 2003년 1분기=100



주: 국민행복지수는 분석대상기간 중 국민행복정도를 상대적으로 비교해 나타낸 것으로 2003년 1분기를 100으로 기준
 자료: 국가미래연구원, '2020년 4분기 국민행복지수' (2021.3.21.)